

삼류 인생을 살았던 입다

삿10:6-8

·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다. 인생의 과정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.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한다. 돈 때문이든, 건강 때문이든, 자식 때문이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.

1)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.

· 점점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지만, 그들의 영적 타락은 결과적으로 성적 타락을 가져왔다. 성전에서 성전창기와 성행위를 할 경우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 기뻐하여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

· 이런 가나안의 풍속이 이스라엘에게도 전염이 되어, 여호와를 섬기던 이스라엘마저 바알과 아스다롯 뿐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영적 타락과 함께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.(6절)

·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셨다.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뿐 아니라 암몬 사람들에게 까지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다.(7,8절)

·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다.(12,13절) 그들이 입술로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지만,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다.

· 회개는 머리로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요, 가슴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며, 궁극적으로는 그 잘못되었던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이다.

· 과연 이스라엘은 징계의 칼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야 자신들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를 다시 섬겼다.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비로서 돌보셨다.(16절)

·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면, 이렇게 신앙 생활하면 안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겠다고 결단해야 한다. 그동안 그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했다면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 것을 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.

· 안타까운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처럼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, 또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경고도 하시는데도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.

2)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는 입다였다.

·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‘하나님이 하시는 일’ 이라고 말하지만, 정작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기준을 삼는다. 그러나 입다는 전쟁의 승패가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, 먼저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한다.(삿11:9)

·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고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돛 땅으로

쫓겨가고, 어려서부터 많은 고생을 하고 자랐다.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했다.(삿11:1,2)

· 안타깝게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입다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.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오는 시련들을 왜 나만 겪어야 하느냐 원망하고, 그래서 그런 시련을 통해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, 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.

· 실제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, 사람 때문에, 혹은 상황 때문에, 몇 십 년 동안을 어둠에 사로잡혀 살다 마침내 주께 돌아오는 분들도 있다.

· 시험 앞에서 기뻐할 사람은 없다. 그러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비로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. 우리가 더 예수님 닮은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될 것이다.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 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게 된다.(약1:3,4)

· 또한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구비케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한다. 자격도 없고 공로로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면, 이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통로역할을 해야 한다.(고후5:17,18) 그런데 이런 목적은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결코 내 뜻대로 주어지지 않음을 깨달을 때 비로서 갖게 된다.

· 안타깝게도 우리는 좀처럼 이런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.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덕분에 더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.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게함으로 인생이 결코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. 그래서 결국 내 삶이 세상의 헛된 것을 탐하는 인생이 아니라, 베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.

학습 및 적용 문제:

1)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했어도 곧 바로 그들을 구원시켜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?(12,13절) 또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인가?

2)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두 가지를 말해보라.(약1:

3) 자신의 상황을 타당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던 적은 없었는 지 나누어보고, 그런 시련을 통과함으로 얻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 지 나누어보자.